

사내 결혼, 사내 커플에 대한 몇가지 생각

정성열

한국 유니시스 영업기획부
sung-youl.chung@kr.unisys.com

한국 유니시스 영업기획부에서 Marketing Communication Specialist로 근무중이다. 시간 나면 하는 일이 음악듣거나 흥대왕 락/테크노 클럽에서 시간보내는 것이 생활도 요즈음 몸이 안따라줘서 거의 접고 있는데...) 근래들어 즐겨찾는 웹사이트는 unisys.com이나 unisys.co.kr이다.



처음 원고청탁을 받았을 때 솔직히 적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1년이 넘어선 사회 초년생으로써 아직 사내커플, 사내결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내커플, 사내결혼에 대해 찬성한다. 아니 오히려 기회가 된다면 적극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회사 차원에서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어 업무능률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직장에 일하러 왔지 연애나 하러 왔나" 라고 말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 눈치에 전전공공하며 하는 연애보다는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다들 동감할 것이다.

그런데 1900년대를 훌쩍 뛰어넘어 막연하 기만 했던 2000년이 도래했는데도 아직 사내커플, 사내결혼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그 원인은 간접하고 소문내기 좋아하는 우리네 습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솔직히 나의 경우도 어디 미팅이나 소개팅(아직은 미팅 소개팅이 들어오는 나이이다) 한 번 하고 나면 온 사무실에 소문이 다 나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걸 하나"는 등 편잔 아닌 편잔을 듣곤 한다. 물론 이런 말들을 그저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치기어린 가벼운 농담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소개팅 나간걸 알고 저런 소릴 하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별볼일 없는 총각 사원 소개팅한 것도 이렇게 쉽게 일파 만파로 소문이 나는데 하물며



사내 커플이라면 그 소문의 강도와 파장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아무리 사랑의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수근 거리는 말들을 들으면서 연애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거북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눈치보면서 만나게 되는 것이라.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도 직원들이 사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여성 분들에게 면목이 없다. 아직 대한민국이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해 있는 국가들 중 하나이기에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다 보니 아무리 사내에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분들이 다 “노”라고 한마디로 일축하기 때문에 나같은 총각 사원들에게는 다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솔직히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이점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직장 풍토도 많이 변화하고 신세 대식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을 모토로 삼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습성은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성차별을 하는가 말이다.

실제로 이런 몇 가지 불편한 요소들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사내 커플, 사내 결혼을 찬성은 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나부터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정말 맘에 드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다지 사내커플이 되고 싶지는 않으니 말이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사내연애를 하고 싶은 개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바로

결에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 훗날 관계가 잘 지속되어 결혼을 하더라도 최소한 서로 속고 결혼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한 직장에서 같이 생활을 한다면 남자는 결혼할 여자 앞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는 없을 것이고 여자들의 그 속모를 내숭 또한 남자 앞에서 그다지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을 터,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갈라서게 되는 비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자의 생활에 대해 이해하는 폭도 넓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를 배려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 만물이 다 일장 일단이 있듯이 사내커플, 사내결혼에도 단점은 있을 것이다. 서로의 회사 생활에 대해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기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주인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사적인 모임이 있어 “오늘 김 부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라고 둘러댔다 치면 “오빠 부서 김 부장님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그 때 같이 가서 부조금도 나눠 냈으면서, 기억 안나?” 이렇게 되받아 칠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즉 부부간에도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서로가 좋은 관계로 지속되면 좋겠지만 사람 사는 것이 항상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닌지라 잘못 삐끗해서 헤어지더라도 한다면 오히려 회사 생활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힘들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몇 가지가 좀 맘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꼭 해보고 싶은 경험이다.

과거에는 그랬다. 몰래한 사랑이 스릴도 있고 훗날 생각하면 애뜻하다고... 하지만 그거 다 바보같은 얘기라고 생각한다. 사랑이 무슨 스파이들 비밀 작전인가? 스릴을 다 찾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인가? 숨어서 몰래 하게. 같은 사무실 안에서 서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남들 다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야 겨우겨우 같이 퇴근하고 그나마 회사근처에서 아는 사람 만나기라도 하면 우연히 퇴근을 같이 하게 됐다는 둥 구태의연한 변명이나 늘어놓고... 이런 데서 과연 애뜻한 감정이 배어날 수 있을까?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이렇게 잘 사귀고 있다”, “이만큼 서로 사랑하고 있다” 라는 솔직한 애정표현을 남들 보는 앞에 떳떳이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남들 눈 의식하며 지내온 커플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런 것 개치지 마시고 떳떳이 사랑하시길 바라며, 주위 사람들도 그런 커플들을 본다면 괜히 이상한 소문이나 내지 마시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KCRC**



한번쯤 사내연애를 하고 싶은 개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바로 결에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
훗날 관계가 잘 지속되어 결혼을 하더라도
최소한 서로 속고 결혼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